

**2024 년 6 월 23 일 “(아바드의 사람들 15) 삶은 예배, 예배는 성령 안에서”  
(롬 12:1-2; 요 4:23-24)**

오늘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합당하게 드릴 예배**

사도 바울은 롬 1-8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난 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12:1).

(1 절) '여러분의 몸을'에서 '몸'은 살과 뼈를 의미하지 않고 몸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위한 합당한 삶, 즉 영적 예배(개역개정)를 뜻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합당한(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12:3~15 장까지 설명합니다.

(1) 12:3~8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2) 12:9~13 장: 사랑에 관하여. 형제 사랑, 주님을 섬김, 성도들과 나눔, 손님 대접,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강조합니다.

(3) 14 장: 믿음에 관하여.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4) 15 장: 소망에 관하여.

15:4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역사를 소망할 때 우리 삶은 능동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줄이면, 합당한 영적 예배는 성도의 '아바드'의 삶을 말합니다. 바른 지체 의식 위에 서서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을 애쓰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온전하여집니다.

**[2]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요 4:23-24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번역은 영과 진리 안에서 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로마서 본문에서 언급한 합당한 예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삶을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면 대개 주일예배를 먼저 떠올리겠조? '합당한 예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주일예배가 삶의 합당한 예배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종교적 요식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는 삶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각자 안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격려와 결단 가운데 일상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다짐하는 생명의 샘과 같은 자리입니다. 공동체적 '함께'의 의미가 은혜롭게 드러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그 곳이 아바드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홀로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돕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믿음, 소망을 삶에 담은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까?
2.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롬 12-15 장을 통해 정리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의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